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8호 【루계 제25421호】 주체105(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선군의 기치밑에 동방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이하고 있다.

주체96(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전면적실천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리고 우리 민족은 신심드높이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6.15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발전을 적극 추동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성취할수 있는 근본토대를 닦아놓았다는데 10.4선언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

10.4선언의 채택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 탁월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와 숭고한 덕망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숭고한 덕망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탄생시키고 자주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불패의 선군정치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6.15통일시대를 힘있게 떠밀어온 추동력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강위력한 무기이다. 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등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가장 정확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온 민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통일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주체적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뜨거운 민족애의 발현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난관과 시련에 부딪치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미친듯이 걸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대북압박공조》강화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 무슨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대해 떠들며 새로운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하려고 발광하는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임대에 해전락록적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악명높은 핵선제공격수단들을 기동전개시키면서 전쟁연습을 벌리고 새로운 선제타격각본을 꾸며내는 등 군사적도발소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속에 괴뢰들은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한사코 끌어들이려고 갖은 음모책동을 다하는가하면 일본반동들과 묵침을 노린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단합의 손을 한사코 뿌리치고 미, 일상전들과 야합하여 전대미문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키는대로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자주와 대단결의 위력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뛰여넘어 굳게 단결해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며 자주와 대단결에 역행하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북핵위협》에 따른 그 무슨 《대응》과 《응징》에 대해 고아대며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범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며 온갖 재앙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적대세력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의 북침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이 《북핵폐기》를 떠들며 미, 일상전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미친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자강력과 원쑤격멸의 의지만을 천백배로 다져줄뿐이다.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괴뢰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대북압박공조》책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를 겁고들며 한사코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으며 《제재통일》야망실현에 미쳐돌아가는 괴뢰역적패당에게 징벌의 철추를 안겨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며 북남선언들을 반대하고 제재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친미보수패당을 종국적파멸에로 몰아넣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통일을 마중해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굳게 뭉친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을 안고 6.15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

### 살림집골조공사 87%계선 돌파

조선인민내무군 전광철소속부대에서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킨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산군에 달려나온 조선인민내무군 전광철소속부대 장병들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구분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불과 열흘동안에 부대가 맡은 백수십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가 87%계선을 넘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인민보안성에서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한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놨다. 성책임일군들이 먼저 현지에 나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지휘를 보다 면밀히 짜고들었다.

지난 시기 려명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전광철소속부대를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급파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공사에 진입할수 있도록 림체적인 작전도 전개하였다.

기본부대보다 앞서 도착한 선발대가 살림집건설을 위한 측량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일군들이 렬차와 화물자동차에 첨승하면서 자재보장을 앞세워나갔다.

9월 18일, 철야강행군을 다그쳐 닷새만에 전투장에 도착한 전광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공격전에 진입하였다.

부대지휘관들은 구분대별전투임무를 구체적으로 준데 기초하여 일공정총화를 엄격히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놨다. 부대에서는 전투현장에 강력한 수리기지를 갖추어놓고 자체로 부속품들을 깎으면서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전투장을 진감하는 힘있는 정치사상공세, 전화위복창조에로 부르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과 기동예술선동대의 힘있는 경제선동이 그대로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2일동안에 백수십동의 살림집기초굴착공사 결속, 살림집속조에 필요한 블로크생산결속, 기초콩크리트치기도 단며칠만에 완성…

철야전투가 벌어지는 살림집공사장은 마치 생사를 판가리하는 하나의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각 구분대의 지휘관들이 어느 한 공정이라도 처지지 않도록 작전을 짜고들며 그날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앞세를 메고 뛰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주영호소속 구분대가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의 기상으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구분대전투원들은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 우리 당의 혁명관을 심장마다에 또아박고 자기 집을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조선인민내무군 김충복소속구분대의 전투원들이 이들의 뒤를 바싹 따르고있다.

이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이 공사의 질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글발을 전투현장마다에 세기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공사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박철희소속 구분대를 비롯한 여러 구분대의 장병들도 당중앙이 정한 돌격침로따라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창조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량강도인민보안국과 함경북도인민보안국을 비롯한 인민보안성의 보안원들이 이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있다.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불변의 철리를 북변땅의 전화위복창조투쟁에서 다시한번 과시할 불타는 열의를 안은 조선인민내무군 전광철소속부대 장병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현지보도반

###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정신으로

청진철도국에서

청진철도국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철도성과 여러 철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피해지역의 백수십km에 달하는 철길들을 복구정비하면서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물동을 하루에 수백차량씩 실어나르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철도국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화의 수송전사들처럼 북부전선에 물동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철도국의 일군들은 화물수송량이 부쩍 늘어난데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운데 맞게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고 규률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해나가고있다.

철도국에서는 각 부서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기관차수리와 화차수리, 철길로반관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기관차실동기대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종전에 비하여 실동기대수를 4~5배이상 늘이고 화차회귀입수를 훨씬 줄이고있다.

수송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렬차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기관사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하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받아들여 렬차통과능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기관차를 타고 지휘를 화선식으로 하면서 렬차편성을 합리적으로 기백있게 해나가고있다.

청진기관차대와 회령기관차대에서는 기관차실동기대수이자 곧 물동수송량이라는것을 자각하고 기관차수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송평객화차대와 청진조차장객화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화차들을 들어오는 족족 수리하여 보내주고있다.

파괴된 철도복구에 떨쳐나선 철도성과 각 철도국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방대한 량의 로반성토와 자갈펴기, 자갈다짐, 방틀에 의한 로반형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몇달은 걸려야 할 철도복구를 20여일동안에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렬차들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현지보도반

### 해상화물수송성과 계속 확대

륙해운성에서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결심을 한마음한뜻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호응해나선 륙해운성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하루에도 많은 물동을 북부전선으로 수송하고있다.

여기에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합동하여 철도역과 부두에 물동이 도착하기 바쁘게 상하선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 배수송에서는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륙해운성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과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물자, 건설용자재, 기계화수단들을 북부전선으로 하루빨리 보내주기 위한 수송전투를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송폭탄이 쏟아지고 적탄알이 귀뿌리를 스치지 않아도 동해안의 항구들은 그야말로 포성없는 전구이다.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철도성에서는 북부전선으로 보낼 물동량들을 원산항과 흥남항으로 직송하고있으며 륙해운성에서는 동해안의 짐배들을 총동원하여 수송전투를 벌리고있다.

륙해운성 일군들이 배들의 입항과 출항, 운행시간표를 과학적으로 작성해놓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정상운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성책임일군들과 해당 부서 일군들은 원산항과 흥남항, 청진항에 나가 직접 승선지도를 하고 여러가지 형식의 선전선동과 후방사업으로 수송전사들의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지난 2일에는 해상수송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송속도이자 피해복구속도라는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고 북부전선 피해복구물자수송전투에 참전한 모든 짐배선원들의 정신력은 최대로 앙양되여 기관점검을 수시로 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대책을 세우면서 안전항해를 보장하고있다.

모든 부두들에서 배를 부두에 대는 시간, 하선시작시간, 하선완료시간, 항해시간이 시간별로 빈틈없이 맞물려져 수송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원산항, 흥남항 일군들은 화차가 들어오면 제때에 짐을 부리우고 검측하며 포장하는 작업을 중단없이 벌리기 위하여 기중기, 지게차 등 설비들의 상태를 수시로 장악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고있다. 그리고 배를 부두에 대자마자 상선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놓는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여 상하선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쉴새없이 연방 부두에 들이대는 배들에 기중기, 지게차들이 만가동하며 세멘트를 상선하고 굴착기, 불도젤 등 기계화수단들도 단숨에 몰어올려 배들에 적재하고있다.

여기에 인민들과 군인들도 합세하여 상하선속도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특히 흥남지구 인민들은 군인들과 함께 흥남역과 흥남항에서 싸우는 전선을 원호하는 심정으로, 불타는 고지에 탄약을 나르는 심정으로 세멘트운반전투에 몸을 내대고 매일과 같이 혁신하고있다.

청진항에서도 배들이 부두에 닿기 바쁘게 인민들과 군인들이 떨쳐나 하선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지금 청진항으로는 원산항과 흥남항에서 만짐을 실은 선박들이 매일 정상적으로 입항하고있다.

륙해운성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해당 지역 인민들과 군인들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북부전선에 필요한 물동수송을 당이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끝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한마음한뜻이 되여 배수송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 북부전선에 7만여t의 세멘트 생산보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력사의 땅 명당지구에 증산돌격전의 불길이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속에 자랑찬 승전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제일먼저 찾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높이 9월 및 3.4분기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초과완수하고 200일전투의 최전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무려 7만여t에 달하는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전시생산을 보장하는것처럼 증산돌격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들은 당에서 준 세멘트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여 북부전선에서 승전포성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 애국충정의 한마음으로 총매진해나가고있다.

온 세계를 경탄시키며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가는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상원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전투장마다에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북변의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결심과 작전을 받아안은 즉시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사전을 벌려 일 최고수천t의 세멘트를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이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전보다 세멘트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끌어올려 9월 및 3.4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낸 이들은 가까운 시일안에 북부전역에 보내주게 된 세멘트를 전량 생산보장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대한 세멘트보장사업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한 조합원료직장과 원료직장, 보수직장과 축로직장, 주강직장과 용무직장의 로동자들이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긴급히 제기되는 과제들을 제때에 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성로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실생활체험을 통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좋은 세상에 오직 우리 당밖에 없다는 진리를 뼈에 새긴 평당지구의 인민들도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수십t의 과철을 마련하여 강구생산에 이바지함으로써 세멘트직장의 설비마다 증산의 동음이 더욱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천일 눈부신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는 침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키면서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여 당에서 제시한 세멘트생산목표를 무조건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전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기치를 먼저 들데 대한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크나큰 기대를 심장깊이 새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최대의 마력, 최고의 실적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계속 총진군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순성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령도

온 나라 천만군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발표하신 26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주체79(1990)년 10월 3일에 발표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은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는 기념비적문헌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멸의 대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키간은 우리 당의 오랜 투쟁력사에서 더없이 준엄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은 변함이 없었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억척으로 다져졌으며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거창한 변혁과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승리와 성과, 경이적인 사변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로 우리 당을 단결력과 조직력, 전투력에 있어서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오른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당, 공고한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진면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시대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자면 당의 지도사상을 확고히 수호하고 순결하게 계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참다운 수령의 당,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발전풍부화하시여 그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힘찬 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전의 불길드높이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해나가는 혁명적당풍이 확립되도록 이끄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만년초석으로,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과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대회이다. 당대회를 계기로 전당적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학습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천만군민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되고 우리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고동치는 사상적순결체로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오늘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는 억척불변이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철의 전위대오로 굳건히 다져나가시는데 있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당안에 여러 갈래의 사상이 있으면 당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도 참다운 통일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해나가는것을 당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당세포강화를 전당강화의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로 키우도록 하신데도 어려있고 전당에 높은 당조직관념에 기초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이끌어주신데도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철저히 확립되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수행해나가는 절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게 되였다. 령도자와 하나의 혈맥을 잇고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며 령도자가 구상을 펼치면 전당이 산악같이 일떠서는 일심단결의 기상이야말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된 우리 당의 숨결이며 맥박이다.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 확고부동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튼튼히 서있기에 우리 당은 주체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당으로 끝없이 위용떨칠것이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다음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로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본성이며 존재방식이다. 우리 당이 장장 수십성상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백승의 위력을 떨쳐올수 있은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온데 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뜻을 정히 받들어 승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경륜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정식화를 주시고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끄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특히 뜻밖에 들이닥친 엄혹한 재난으로 한지에 나앉은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는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전환시키도록 하시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하루빨리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마련해주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있어 우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의 품이야말로 위대한 어머니품, 영원한 행복의 요람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성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조선로동당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오 수 경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상농광산 당조직에서 종업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갱에 내려간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 대한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해설모임을 통하여 이곳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고 당면한 200일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리 상 두

## 첫 혁명활동보도가 전하는 사연

‖ 주체70(1981)년 6월 4일부 당보를 펼치고 ‖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시는 나날 쌓으신 업적을 합치면 아마도 몇십몇백권의 부피두터운 책에도 다 담지 못할것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을 비롯하여 당건설에 특기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건만 그이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것을 극력 사양하시였다.

1980년대초에야 그이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보도가 당보에 실리였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한없는 겸허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를 이끄시면서도 한평생 혁명전사로서 수령님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와 숭고한 도덕의리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해외의 한 명망높은 인사는 우리 일군들에게 넓고넓은 세상을 돌아보느라면 이것은 그 하나만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당보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오래동안 품고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였다.

날을 따라 더해가는 당보 분필전사들의 열망은 우리 당과 혁명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위인상에 대한 글을 써서 온 세상에 격조높이 전하고싶은것이였다. 하건만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한없는 겸허성으로 하여 1960년대를 넘어 1970년대까지도 이 소망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보도가 처음으로 당보에 편집된것은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그 다음해인 주체70(1981)년 6월이였다.

이때의 사실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업하였던 한 일군은 자기의 회상실기에 이렇게 썼다.

《당시 우리는 크나큰 걱정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표향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첫 보도로 신문에 나가게 되였던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현지지도는 어디까지나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개 문장으로 된 기사를 집필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저 하늘이 비좁도록 대서특필하고싶은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쉬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신문편집이 끝나갈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실무시찰과 관련한 소식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여야 한다고 그루를 박듯 강조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한 첫 보도는 정법하게 신문에 편집되였습니다.

그 력사적인 혁명활동보도가 바로 주체70(1981)년 6월 4일부 〈로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보석은 작아도 빛을 뿌린다.

비록 눈에 띄지 않게, 너무도 정법하게 편집된 기사였지만 이날의 혁명활동보도는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토록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첫 보도를 왜 한면 가득히 대서특필하지 못했는가 하는 전화가 무수히 걸려왔다.

하지만 그때 우리 인민들이 그 첫 혁명활동보도에 담겨진 사연을 어떻게 다 알수 있었겠는가.

진정 우리 장군님의 한없는 겸허성과 위대한 인격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것이였다.

우리 장군님의 겸허성은 력사적인 첫 혁명활동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변함이 없으시였다. 그럴수록 우리 당을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는 막을수 없는 대하마냥 온 나라에 세차게 굽이쳤다.

본사기자 백 영 미

# 애국애족으로 빛나는 한생

## 김 응 우 선 생 님 의 서 거 일 에 즈 음 하 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이것은 만경대혁명가문의 가풍이고 대대로 이어지는 애국의 넋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서거 138돐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숭고한 애국애족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그이의 고결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넘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의지를 더욱 굳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다!

바로 이것은 지난날 국력의 쇠퇴로 하여 망국의 비운이 짙어가던 시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언제나 앞장서신 **김응우**선생님의 한생의 지론이였다.

1848년 6월 17일 당시 평양 중성리에서 탄생하시여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시던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생활이 너무도 곤난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의 묘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옮겨앉으시였다.

비록 소작살이와 산당지기를 하시였지만 선생님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 마을사람들에게 늘 들려주군 하시던 이야기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민의 새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예로부터 평양8경과 함께 명승지로 이름높은 고장으로 일러오던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탐내여 돈냥이나 있는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은 이 일대의 산들에 경쟁적으로 조상의 묘를 쓰고있었다.

그 시기 우리 나라의 농촌마을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가난속에 살아오시면서도 봉건관료배들과 지주 그리고 외래침략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김응우**선생님.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심이 열렬하시였던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늘 일가분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봉건관료배들과 지주놈들의 착취적본성에 대해 깨우쳐주시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자랑스러운 민족적긍지와 슬기를 가슴에 새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기에 만경대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투철하시였고 봉건관료배들과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김응우**선생님을 무척 존경하며 따랐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분이시기에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인민들을 반동관료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키실수 있었으며 몸소 그 앞장에 서시여 전결하게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1866년 8월 미제침략선 《서먼》호의 격침은 전적으로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이 낳은 빛나는 승리이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대동강을 거슬러오른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싸움의 선두에 나서시여 만경대와 그 주변인민들에게 오만한 침략자들과의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평소에 선생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교양육성된 만경대와 그 주변인민들은 선생님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서먼》호를 불태치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시에 있어서 대포맛으로 《서먼》호를 격침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서먼》호로 말하면 어머문의 대포를 비롯하여 중무장을 갖춘 침략선이였다.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 수백년세월 음풍영월하면서 허송세월한 봉건통치배들의 치사의 막심한 후과로 하여 평양인민들은 그때 맨손으로 침략선 《서먼》호의 침입을 물리치는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최생적인 전투의 앞장에 **김응우**선생님께서 나서시였던것이다.

미제침략선 《서먼》호가 두루섬에 정박하고있을 때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으시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쎌물과 밀물의 차이가 심한 대동강의 특성과 우리 선조들의 투쟁경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화공전술로 적을 소멸할것을 밝기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의 밝기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이의 지도밑에 평양성인민들은 판군과 함께 쎌물때를 기다리다가 나무단을 가득 실은 불배를 《서먼》호쪽으로 띄워보내여 가증스러운 침략선과 적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고 대동강 한복판에 수장해버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해외침략력사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격침된적이 없었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평양성인민들은 미제침략선 《서먼》호를 격침시킴으로써 원쑤들에게는 추호의 용서도 자비도 모른다는 조선사람의 반제계급의식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서먼》호가 격침된 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배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군함 《쉐난도아》호를 대동강하류에까지 침입시켜 살인, 방화, 략탈을 일삼았다.

그때에도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만경대와 그 주변인민들로 의병을 조직하시고 판군에게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해나설것을 호소하시여 놈들을 쳐물리치는데 크게 공헌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은 뛰어난 군사가도 아니시였다.

그이께서 배우신것은 농사일밖에 없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 바로 이것이 **김응우**선생님으로 하여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그날의 격전을 잊지 못하고있으며 **김응우**선생님의 고귀한 애국애족의 넋을 이어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투쟁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애국애족으로 심장이 불탈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이 철의 진리로 하여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애족의 한생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만경대혁명가문의 위대한 애국의 가풍을 온 나라 가정의 가풍으로, 조선의 가풍으로 꽃피여 이어가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철의 의지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만경대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룩해놓은 업적이 커서만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일목을 타고난 가문이기때문에 자랑하는것이며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피와 땀을 바쳐왔기때문에 자랑하는것이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만경대가문의 력사에 대하여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려서부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오직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의 당부대로 한평생 일감에 파묻혀 살려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위대한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신것 아니랴.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김응우**선생님의 불멸의 그 한생을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피는 락원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 현지지도의 길에 새겨진 뜻깊은 이야기

###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따라배우라

지난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시며 지난해 사회주의경쟁에서 몇등을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1등을 하였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고 과수부문의 경쟁과 관련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통하여 사과생산기지들에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얻은 경험과 성과들을 충분히 교환하고 서로 따라배우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올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사과나무들의 꽃피는 철이 떨어진 속에서도 사과대풍을 마련하였는데 그런 경험들이 서로 교환되고 모든 과수농장들에서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회주의경쟁을 종화한 다음 시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따라배우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과수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방법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한다면 과일대풍을 안아오는데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었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과생산기지들사이에 경험들을 교환하고 서로 따라배우게 된다면 얼마든지 당이 정한 과일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 유훈관철기풍이 철저히 선 공장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일이 잘 되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동강돼지공장의 관리청사앞에 있는 직관판들을 보고도 알수 있다.

그 직관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과 지시, 그 집행정형, 공장의 생산정상화일정계획을 보여주는 직관판들이다.

공장에 찾아오신 지난 8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직관판들을 보아주시며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이렇게 월별로, 년도별로 고기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고기를 생산하고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집행하고 그 정형을 총화하는 기풍이 섰다고, 다른 단위들에서도 이 공장에서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지시, 그 집행정형을 보여주는 직관판을 만들어 게시해놓고 건별로, 조항별로 표식을 하면서 철저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똑똑 총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하나의 직관판을 보시고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대동강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헤아리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신것이리라.

본사기자 림 정 호

# 당의 부름에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 나래치는 북부전역

##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군대를 위하여

### 회령시 피해복구전투장에서

피해복구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는 회령전역에서 군대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는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들이 날을 따라 더욱 감동깊게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조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회령시에서 부령-회령도로의 파괴된 700여m의 구간을 24시간안으로 복구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받았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즉시 책임일군협의회를 열고 시안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웠다.

작업량은 방대하였다. 성토량만 하여도 2만 5천여㎥에 달하였고 수천㎥의 구간에 장석을 입히고 잔디를 심어야 하였다.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총동원되였다. 삽차, 굴착기, 자동차, 뜨락또르 등 륜전기재들도 총집중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기들, 전투장을 들끓게 하는 방송원의 힘찬 독소리와 전투적인 노래소리, 맞들이를 들고 달리는 로동자들, 무릎을 치는 강물속에서 막돌운반전투를 벌리는 농장원들, 언방땅을 휘돌려대는 굴착기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와 뜨락또르들… 도로복구전투장은 말그대로 사생결단의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전투가 한창 고조를 이루고있을 때였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조선인민군 장춘원소속부대의 군인들이 맞들이와 삽을 들고 달려왔다. 부대의 예술선전대원들이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인민들과 힘을 합쳐 도로복구전투를 앞당겨 끝내려는 결사의 각오가 병사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었다. 흔석을 듬뿍 담은 맞들이를 들고 힘차게 내달리는 군인들의 모습은 도로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시의 일군들과 함께 도로복구전투를 속전속결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피바다가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도 도로복구전투장에 달려와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으로 전투장의 분위기를 북돋아주었다.

군민이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드세찬 공격전을 벌린 결과 파괴된 도로는 단 하루사이에 복구되고 인원과 물자수송이 원만히 진행되게 되였다.

군민대단결의 뜨거운 화폭은 오봉지구의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다.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의 기상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은 매일, 매 시각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회령시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군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 앞장에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서있다.

김은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녀맹원들속에 들어가 전화의 나날 남강마을녀성들처럼 살며 투쟁할것을 호소하면서 군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시안의 녀맹원들이 친부모의 정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아침마다 손말구지와 자전거들에 물통을 싣고 살림집건설장을 찾는 수백명 녀맹원들의 모습은 격전장의 숨결을 뜨겁게 하여준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에 맞추어 붉은기를 휘날리고 북을 치면서 진행하는 녀맹원들의 경제선동은 군인들에게 열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안봉희동무를 비롯한 신발수리공들이 떨쳐나섰고 최성애동무를 비롯한 녀맹원들도 재봉기를 전투장에 전개하고 병사들의 옷수리를 성의껏 해주고있다.

회령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군인들을 대할수록 조국보위초소에 선 천자식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녀맹원들은 병사들을 위해 친어머니의 뜨거운 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회령시의 녀맹원들만이 아니다. 조춘희동무를 비롯한 청진시 포항구역 북항동의 녀맹원들도 회령땅으로 달려왔다. 제15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가정부인무류에서 우승한 자랑을 안고 울려가는 이곳 동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노래소리는 격전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군대를 위하여.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일심단결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이 꽃펴날수 있는 군민대단결의 대풍모인것이다.

항일의 천군, 원민전통이 수놓아진 두만강연안에서 선군시대에 또다시 힘있게 떨쳐지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새 기적,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영웅신화가 창조되고있다.

### 조선인민군 신봉철소속부대에서

##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회령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신봉철소속부대 군인들이 살림집건설에서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를 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지난해 라선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던 나날에 높라온 위훈을 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부대의 지휘관, 군인들은 회령시피해복구전투에서도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할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부대의 정치일군들은 군인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사상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의 기상으로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도록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김영군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책임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에서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우선 세멘트와 철근, 흔석,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예견성있게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나가고있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지휘관들이 한개 단위씩 맡아가지고 나가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세멘트공급과 철근가공, 블로크생산, 목재생산을 비롯한 선행공정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김을철동무를 비롯한 시공일군들은 살림집기초공사에 진입한데 맞게 관하부대, 구분대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한 작업공정이 끝나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다음공정으로 넘어가는 질서를 강하게 세우는 한편 휘틀조립, 철근가공, 철근조립, 콩크리트타입 등 모든 작업들을 전문화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수송실적이자 건설속도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부대의 군인들은 도로관리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하루에도 수백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오가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자재수송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김철벽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한m한m의 구간마다에 병사의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고있다.

큰물피해복구전투의 제일 어려운 과제를 인민군대에 맡겨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새로운 영웅신화창조로 보답하려는 부대 지휘관, 군인들의 억센 의지에 떠받들려 공사속도는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 경흥땅에 울리는 무쇠철마의 동음

###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대경륜이 펼쳐지는 북부피해복구전선, 철야진군의 힘찬 발걸음소리 드높은 이곳에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전투원들속에는 우리의 미더운 기계화초병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경흥군에 파견된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린산군대대와 연산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발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지난 9월 25일 《풍년》호 물도절 10대가 제방공사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풍년》호물도절이 왔다!

이 소식은 삽시에 온 군으로 퍼져갔다.

날마다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받아안는 군일군들과 인민들의 눈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의 눈에 비낀 린산군대대와 연산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 역시 곳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조국의 북변땅까지 머나먼 길을 달려온 즉시 제방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전투에 진입한 돌격대원들, 인민들이 습기가 차오르는 강바닥에서 침식을 하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저저마다 자기 집으로 이끌었지만 굳이 사양하며 큰물로 심히 파괴된 제방공사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경흥땅에 먼 후날에도 소리높이 자랑할 만년제방을 하루빨리 쌓아갈 충정뿐이였다.

우리 당이 펼친 토지정리의 원대한 설계도따라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하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돌격대원들은 지금 은정어린 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날마다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도 물도절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새날을 맞는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능숙한 지휘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가는 대대지휘관들인 김창련, 리명철동무들과 가정을 떠나 수년세월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물도절운전수들인 박문성, 리승호, 박성철, 홍석진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이곳 돌격대원들이 울려가는 무쇠철마의 힘찬 동음과 더불어 경흥땅에는 그 어떤 재해에도 끄떡없는 만년제방이 쭉쭉 뻗어나가고있다.

-무산군에서-

-경흥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장마다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가 새겨져있는데 이 구호가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라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는 충정과 애국의 구호가 되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깨끗한 량심과 실천의 구호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마련되는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창조물마다에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는 우리 병사들의 투쟁모습과 함께 힘있는 글발들을 볼수 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장병들도 자기 부모형제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가는 심정으로 연사군 읍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 병사는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간다

###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에서

부대장병들이 맡은 살림집공사장은 습지대인것으로 하여 공사초기부터 어려운 난관들이 막아나섰다.

계속 쏟아져나오는 물로 하여 기초굴착공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겨워졌다.

도로가 끊어진 조건에서 하루빨리 공사에 진입하기 위해 간단한 작업공구들만을 메고 달려온 이들에게 있어서 물속에서의 굴착전투는 정말 힘에 부쳤다.

부대지휘관들은 그럴 때일수록 시공의 질을 엄격히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 침입식정치사상공세를 더욱 드세차게 들이대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이 살림집은 우리의 친부모, 친형제들의 보금자리이다. 살림집기초는 후날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인민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 병사들의 량심에는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

부대정치일군들의 화선선동과 방송원 리금향동무의 격조높은 선동연설은 군인들을 더욱 자각케 하였다. 한마음한뜻이 된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물과 감탕을 끊임없이 퍼내면서 단 하루동안에 기초굴착공사를 시공상 요구대로 손색없이 끝내고야말았다.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때였다.

부대지휘부에서는 들어오는 세멘트의 강도가 서로 다른것을 타산하여 작업장마다에 해당 세멘트에 따르는 혼합비를을 적은 알림판들을 세워놓고 군인들이 시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성광소속구분대의 일부 군인들이 혼합비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분대의 지휘관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자기 사업에서의 빈틈을 먼저 찾았다.

혼합물의 질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을 한 군인들만이 알수 있다. 그들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요구를 지킬수 없다. 이런 자각을 백배한 그는 혼합물작업을 맡은 군인들속에 들어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부모형제들의 보금자리로 될 이 살림집기초에 땀을 바치기 전에 먼저 병사의 깨끗한 량심을 묻자.

이 일을 계기로 구분대의 지휘관들은 세멘트와 모래, 자갈을 담는 맞들이들을 혼합비를에 따라 규정대로 만들어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갔다.

불타는 애국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부대장병들은 피해를 받은 연면수의 수십리구간에서 이틀동안 전투를 벌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천년책임》, 《만년보증》,

이것은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장병들뿐아니라 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나온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깨끗한 량심으로 새겨가는 글발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당정책을 한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며 맡은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 덕성군인민위원회 부장 김봉환동무

대중앞에 나설 자격은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당초급선전일군은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덕성군인민위원회 부장 김봉환동무의 사업이 그에 대답을 준다.

《대중교양자인 학습강사가 연락에 나설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이들앞에 떳떳이 나설 자격이 있는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김봉환동무의 25년간 학습강사생활에 대한 추억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농업전문학교(당시) 강좌장으로 사업하면서 학습강사활동을 할 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대상이 다를뿐 당정책을 해설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나는것이 없다고 보았던것이다.

인민정권기관 일군으로 사업하면서 한번두번 강의에 출연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힌것은 자기 맡은 분야의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지 못하고 대중을 교양한다는 자책감이였다.

몇해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해설강의에 출연할 때였다. 군인민병원 학습강사인 안해와 함께 밤을 새워 때 분장, 때 분구까지 완전히 통달한데 그치지 않고 세계교육실태까지 연구하면서 강의준비를 품들여 한 그였지만 대중앞에 나서니 그들의 눈을 마주보기가 두려워졌다.

로작의 기본사상과 체계를 학습반성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킨 그의 강의는 자기비판으로 이어졌다. 군의 교육사업을 당앞에 책임진 일군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그날의 맹세를 그는 걸음걸음 실천에 옮겨왔다.

중등소학교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연구실을 더 밝고 정중히 꾸릴것을 70일전투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내밀 때였다. 추운 날씨에 어떻게 공사를 하겠는가고, 좀 미루자고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서는 부장자격도, 당초급선전일군의 자격도 없다면서 그는 후원단체의 일군들과 학교교직원들을 불러일으켜 공사를 내밀었다. 비닐박막으로 덧집을 짓고 불을 때서 온도를 보장하면서 층막치기며 벽체미장작업을 전격적으로 내밀어 공사를 완공하고 훌륭히 꾸린 연구실들을 학생들앞에 내놓을 때 그는 삶의 희열과 보람을 한껏 느끼였다.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 대중앞에 떳떳하다는 긍지감 또한 높아졌다.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지금도 외우는 이야기가 있다. 일부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스스로 맡아나선 김봉환동무를 도와 그가 가있는 어느 한 세멘트공장에 도착한 일군들은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을 마주하게 되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가 한방울이라도 스며들세라 자기가 입었던 비옷마저 세멘트마대에 덮어준 김봉환동무가 한밤을 꼬박 세멘트무지옆에서 비를 맞으며 새우고있었던것이였다.

이렇듯 김봉환동무는 깊이있는 강의준비와 높은 실력만이 아니라 당이 바라는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실천행동으로 대중앞에 나설 자격을 갖추어왔다. 그의 강의가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대중이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에서는 20여년간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대중교양에 이바지해온 그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불러주었으며 오늘은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로 내세워주었다.

본사기자 김향란

### 령대탄광 과장 김봉일동무

18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해오고있는 령대탄광 과장 김봉일동무의 강의에서 특징적인것은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에 품을 넣고있는것이다.

그는 어떤 주제의 강의이건 제강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한가지라도 새로운 자료, 현실에서 절실한 문제를 강의에 반영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밤이 밝도록 다녔다.

나라의 경제문제를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한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이틀째 자정이 넘도록 학습제강을 연구하여 당장이라도 강의에 출연할수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학습반성원들이 탄광의 일군들인 조건에서 그들이 학습을 통해 실지 써먹을수 있는 혁명의 량식을 얻게 하자면 강의를 현실과 결부해야 한다고 본 그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70일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낸 3정 정장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그곳 채탄막장을 찾았다.

채탄공들속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작업글 진도중에 점제같은 암반이 나타났을 때 일부 채탄공들이 에돌아가자고 하였지만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직접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까내며 돌파구를 열어나간 갱장에 대한 자료를 쥐게 되였다. 이런 생동한 사실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한 그의 강의의 실효는 컸다. 강의가 끝나자 갱장들을 비롯한 학습반성원들은 학습을 통해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후 학습반성원들은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200일전투목표를 매달, 매 분기 넘쳐 수행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되였다.

그는 학습강사이기 전에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일군이다.

몇해전 그가 공무직장 부문당위원장으로, 학습강사로 사업하고있던 때 주물작업반의 한 로동자가 뜻하지 않게 화상을 당하였다. 이때 김봉일동무는 자기의 피부를 이식해주고 수혈도 해주어 그가 다시 초소에 서게 했다. 단조작업반의 한 로동자가 앓고있을 때에는 보약재를 가지고 그를 자주 찾아가 완쾌시켰으며 당원으로, 혁신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직장의 한 로동자가 시집을 갈 때에는 가정에서 이불도 가져다주고 직장종업원들과 함께 결혼상도 차려주었다. 이렇게 그는 공무직장에서 부문당위원장, 학습강사로 일하는 기간에만 해도 10명의 로동자들을 당원으로, 30여명의 로동자들을 혁신자로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30여년간 로농통신원으로 사업해오고있는 그는 수많은 기사를 집필하여 출판보도물들에 실었다. 이 나날 그는 우리 로농통신원으로 탄부들속에서 불리워지고 온 나라가 다 알게 되였다.

오늘 탄광이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적으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여러번 1등의 영예를 지니고 석탄생산과 로동자들의 후방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인 김봉일동무의 숨은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손영희

### 신흥군 읍종합진료소 소장 박장호동무

신흥군 읍종합진료소 소장 박장호동무를 사람들은 《우리 소장선생님》, 《우리 학습강사》라고 존경담아 부른다.

보건일군으로, 당초급선전일군으로 일해온 30여년간에 대한 총화라고도 할수 있다.

그 나날의 갈피마다에는 감동깊은 사연들이 새겨져있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들에서 혁명적구호문헌이 발굴되었을 때였다. 당시 군인민병원 부원장으로 사업하던 그는 한달음에 달려가 구호문헌들을 돌아보았다. 볼수록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기개가 배에 새겨지고 영광의 땅을 지켜선 당초급선전일군의 본분을 다해갈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군당위원회와의 토의밑에 학습반성원들로 장률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였다. 답사를 계기로 학습반성원들의 가슴속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깊이 새겨지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억척의 신념이 바위처럼 억세게 들어앉게 되였다.

고난의 시기 음종합진료소 소장으로 사업하게 된 박장호동무의 어깨우에는 많은 짐이 놓이게 되였다. 단위책임자로서,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었던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상의 무거를 높이 추켜들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오늘의 시련을 뚫고나가자고 교양사업을 하면서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일터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한명두명 다시 돌아왔다. 풀뿌리와 나무순을 끓여먹으면서도 이들은 일터를 지켰고 나날이 면모시켰다.

수백㎡의 2층건물을 새로 짓고 진료소뜰에 절광이를 비롯한 약용식물과 목화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심장속에는 애국의 마음, 불굴의 신념이 깊이 뿌리내렸고 제손으로 거두어들인 약초와 열매로 해마다 수백kg의 보약과 고려약을 만들어 읍지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의료일군의 긍지를 한껏 느끼며 더욱더 분발해나섰다.

바로 그러한 체험은 박장호동무로 하여금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남달리 사랑하게 하였다. 이 노래를 감상할 때나 부를 때면 그의 주름깊은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하게 고이군 한다.

학습강사이면서 군당직외강연강사이기도 한 그는 강의와 강연때마다 고난의 시기 진료소가 모진 시련을 박차고 일떠서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본명강국건설을 위한 길에 충정을 다 바쳐나가자고 호소하군 한다.

어려해진 박장호동무는 당조직과의 토의밑에 진료소 중앙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유화작품을 모실것을 발기하고 종업원들을 발동시켰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언제나 심장에 새겨안고 우리 당 보건일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의료일군들과 주민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유화 《인민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는 이렇게 되여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사람들을 충정의 인간, 신념의 인간들로 키우는 믿거름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이런 미더운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토록 강하고 위대한것 아닌가.

본사기자

#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자

##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인것만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올해의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시기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얼마전 우리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1부상 박호영, 국장 김성환, 기봉철, 부국장 리명수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총적방향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면 한다.

**1부상:**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총적방향은 당의 뜻대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여 국토관리전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에 따라 해마다 진행되는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전인민적인 애국사업이다. 이번에 함북도 북부지대에 들이닥친 혹심한 재난이 그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현실은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조국산천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하지 않게 만년대계로 꾸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해야 할 목표를 높이 세우고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자:** 국토관리사업에서는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할수 없다. 하지만 특별히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장:** 옳은 말이다. 국토관리는 전령토에 대한 관리사업인것만큼 그 어느 부문이나 다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도로부문에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지대의 파괴된 도로, 다리들을 빨리 복구하는것이다. 피해복구과제는 방대하다. 그런것만큼 해당 부문들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피해를 많이 받은 도로복구부터 앞세워야 한다. 도로들을 빨리 복구하여 륜전기재들의 운행을 보장하여야 살림집, 학교, 병원건설을 비롯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를수 있다. 피해를 받은 시, 군들에서 교통운수에 지장을 주고있는 도로에 대한 복구사업에 로력과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집중하여야 한다.

다리복구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큰물피해를 받은 시, 군들에서 중량차들의 통과능력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다리를 견고하게 복구해야 한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십km의 도로와 수십개의 다리건설, 수백km의 도로기술개건, 백수십개의 다리를 보수해야 한다. 도로를 기술개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도로의 평탄성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페인 부분들을 잘 보수해야 륜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과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다. 도로사검구역과 함께 분리띠같은것을 교통의 안전성과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잘 형성하여야 한다. 위험방지시설들과 도로표식판들도 새로 세울것은 세우고 보수할것은 보수해야 한다. 도로건설을 중단없이 내밀면서 겨울철에 륜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수 있게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토사도로들에 대한 보수는 도로바닥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하며 길섶, 물도랑정리를 잘하여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 성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며 전투를 지휘하고있다.

**기자:** 총동원기간 강하천부문에서는 어떤 문제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국장:**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수십km의 제방공사와 수백km의 제방보수, 근 200만㎥의 강하천바닥파기를 통이 크게 내밀어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큰물피해를 받은 강하천제방부터 복구하여야 한다. 강하천제방들을 복구하고 관리를 잘해야 큰물로부터 토지와 도시, 마을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을 보호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력량편성을 실정에 맞게 하여 피해를 입은 강하천제방들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 이때 높아진 강하천의 바닥을 파내여 제방을 쌓아 물통과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방을 든든히 쌓고 물을 입혀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수력발전소 아래지역의 하천바닥을 파내고 잘 정리해야 한다.

강하천정리과제는 방대하다. 제방을 보강할데는 보강하고 물을 쌓아야 할 곳은 물을 쌓으며 잔디를 심어야 할 구간에는 잔디도 심어야 한다. 또한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호안공사도 해야 한다. 강하천들에 흙과 모래가 흘러들어 바닥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강하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필요한 곳들에 계단을 만들어 옹벽을 쌓을데는 옹벽을 쌓아야 한다.

**기자:** 정말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할 일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뛰며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선 인민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을것이다.

**부국장:** 도로건설과 보수, 토지복구 등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못해낼 일이 없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당의 령도에 충실하며 조국과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은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일군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있다.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투쟁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창조되기마련이다.

지난 기간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시, 군일군들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일

## 다리건설과 보수에 큰 힘을 넣어

### 철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입니다.》**

철산군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봄철에 비해 무려 2.5배 이상에 달하는 다리들의 대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제끼면서 대담하게 다리를 새로 건설한것은 주목할만 하다.

군에서 이 문제를 중시한데는 리유가 있었다. 다리들을 건설한지 오래된데도 있었지만 지난 시기 이러한 다리들을 대보수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 파괴된 부위를 수리하는것으로 대치하였었다. 이것은 조건에 빙자하면서 관심을 덜 돌린탓이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한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자책이 컸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원세1다리가 일정에 올랐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기되였지만 어느 방안이나 다 보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군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수가 아니라 힘에 부치고 어렵더라도 대담하게 다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새로 놓자. 물론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질적으로 해놓으면 후대들에게 떳떳이 물려줄수 있다. 이번 기회에 량심의 평가를 받자.

그의 이야기는 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모두가 분발해나섰다.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리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통과능력을 높일수 있는 건설적인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원세1다리건설이 한창이던 때의 일이다. 제일 난문제로 나선것은 골재였다. 사실 이틀이면 다 하게 건설장에 쌓이는것이 골재였는데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미처 보장하기 어려웠다.

일군들은 골재수요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륜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들은 운전사들과 함께 먼길을 다녀오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속품을 비롯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었다. 또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결국 건설장에서는 골재걱정을 모르게 되였다. 다리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속에 다리밑에 종전에는 없던 무넘이가 생겨났다. 하여 다리기둥주변이 페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큰물에도 끄떡없을 새 다리가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다리대보수전투를 통해서도 군일군들의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를 잘 알수 있다.

실례로 대보수량이 제일 많은 문봉다리를 들수 있다.

다리 전구간에 철근을 넣고 콩크리트치기를 하여야 했고 다리가운데 기둥도 세워야 하였다. 사실 다리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문제는 일군들이 스스로 걸머진 일이였다. 원래 다리설계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 그런 다리를 지금까지 리용하여왔다.

하지만 군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모든것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보고 대하였던것이다. 그러자니 많은 량의 철근이 요구되였다.

일군들은 그 누가 자재를 가져다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모자라는 철근은 건설자들과 함께 함마질을 해가며 콩크리트속에서 뽑아냈다. 이렇게 모아들인 철근량은 결코 적지 않았다. 마음먹고 달려들으니 불가능이란 없었고 막혔던 길도 열렸다.

군안의 일군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창조적인 일본새를 발휘해나갈 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단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오 철 훈

## 청천강의 면모가 일신된다

### 안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안주시에서 청천강통화4호제방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공사는 청천강의 섬들레에 든든한 제방을 쌓아 이 지구의 800여정보의 토지와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 등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량은 방대하다. 제방 총길이는 천수백m, 성토량은 수만㎥, 콩크리트타입면적만 하여도 1만 수천㎡에 달하였다.

시일군들은 도와 국토환경보호성과의 련계밑에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크고작은 강하천들과 호수, 저수지들이 많아 물자원이 풍부한것만큼 물관리를 잘하면 나라와 인민의 물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큰물과 가물피해도 막을수 있고 조국강토의 풍치도 더 훌륭히 꾸릴수 있습니다.》**

현장에 지휘부를 전개한 시일군들은 공정별공사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우는것과 함께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댔다.

주타격방향인 제방성토공사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계화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마대전을 힘있게 들이대고있다. 이들은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길 비상한 각오안고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수만㎥에 달하는 토량을 처리하고 제방성토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다. 이와 함께 청천강바닥을 1.5-3m깊이로 파내고 우물구물한 구간을 곧추 려면서 나오는 흙을 리용하여 정리작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 하여도 1만 5천㎥나 되였지만 이들은 새로운 위훈창조에 대한 열망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련속공격을 들이대고있다.

제방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자각을 안고 불사신마냥 떨쳐일어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바닥의 돌을 리용하여 제방흙이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돌입히기를 다그치고있다. 그리고 돌입히기를 한면과 제방옷면의 절반정도되는 부분에 25㎝의 두께로 콩크리트포장면들을 합리적인 모양의 철근들로 련결하는 이음줄시공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제방의 견고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불사신마냥 떨쳐 나 무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맞받아나가며 단 3일동안에 1700㎡의 면적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통화협동농장, 시련의봉사관리소, 안주뿜프공장, 안주철연통공장을 비롯한 시와 도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만리마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해당부문 일군들도 사심없는 방조를 주고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숭고한 인생관을 삶의 좌우명으로 심장에 새긴 시와 청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투장마다에서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 실정에 맞는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 신계군산림경영소에서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신계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탐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하여 바늘잎나무모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지난 시기 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바늘잎나무모생산량은 많지 못하였다.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모를 비롯하여 키우기 힘든 수종들에 한해서는 품을 들인것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

원인은 땅속해충들의 피해가 심한데 있었다. 여러가지 토양소독제를 리용하였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을 놓고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겼고 당시의 나무모생산에 만족해하였다. 하지만 지배인 강석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뜻을 다시금 새기는 과정에 자신들을 새롭게 자책하였다.

당에서 의도하는대로 나무모들을 잘 키워내지 못했다는것은 결국 전선에 탄약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다는것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보니 전화의 나날 한발한발의 총포탄을 목숨으로 보장한 군수공장 로동계급처럼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모를 당과 국가앞에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대하지 못한 일본새가 심각히 돌이켜졌다.

그후 경영소에서는 바늘잎나무모생산을 종전보다 더욱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헐치 않은 과업이였다. 일군들은 가능성을 찾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고 그 과정에 불패작물을 주목하게 되였다. 돌깨작물이 있는 곳에는 금병이를 비롯하여 땅속해충이 거의 없었던것이다.

방법도 간단하였다. 일정한 너비의 두둑으로 된 나무모밭사이에 돌깨작물을 심으면 되였다. 두둑으로 된 나무모밭사이는 공간이 있기때문에 나무모생산에도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돌깨작물을 사이사이에 심으면 설사 어느 한 곳에 땅속해충이 있다고 해도 류동을 못하므로 전반적인 나무모밭에 침습할수 없을것이였다.

이 방법이 곧 실천에 옮겨졌다. 확실히 땅속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어졌고 씨를 뿌린 나무모의 사름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게 되였다. 토양소독제도 많이 절약할수 있었다.

경영소에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야외제배장에서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물을 임의의 시간에 분무해줄수 있게 대책도 세웠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금 바늘잎나무모가 푸르싱싱 자라고있으며 군의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담보해주고있다.

나무모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탄약과 같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에서부터 그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참으로 훌륭하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애국의 마음안고 나무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단천시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3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인 최수봉 공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행진단성원들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으로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개천절기념행사 진행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인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과학적인 통찰력, 정력적인 령도로 신화적존재로만 전해오던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통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한 분렬로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비극이라고 하면서 그는 민족의 피와 애국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겨레가 이 땅우에 존엄높고 무궁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북부전선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온 사회를 령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 피해지역 인민들과 건설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행들이 련일 꽃펴나고있다.

### 고결한 마음, 아름다운 정신세계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 시당위원회성사에는 뜻밖의 일들이 련이어 생기였다. 누가 가져다놓았는지 모를 많은 지원물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것이였다.

새 이불과 담요, 두툼한 솜옷, 많은 식량과 가정용품들…

지원자들의 이름과 명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원물자를 넣은 지함에 이런 글자가 씌여있을뿐이였다.

멸사복무, 바로 그 네 글자가 모든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온 가정이 떨쳐나 즌비한 많은 식량과 수백점의 피복류들을 정성껏 마련한 책임일군들로부터 자식들의 세살림을 위해 즌비해두었던 생활필수품까지 들고나온 평범한 운전사들에 이르기까지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마음이 얼마나 고결한가를.

이들만이 아닌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단위 일군들과 구역, 군당위원회와 구역, 군급단위 일군들이 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나날이 계속 늘어나는 지원물자, 바로 여기에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치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비껴있다.

### 탄원자, 돌격대원이 된 심정으로

북부피해복구전선에 급파되는 돌격대원들과 탄원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시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구역,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북부지역에 파견되는 돌격대들의 로력보충과 삽과 곡괭이, 정대 등 많은 작업공구들을 새로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시당과 구역, 군당, 시급단위 당일군들이 북부전선에 급파되는 건설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단 며칠사이에 탄원자, 돌격대원들에게 작업공구와 식료품, 생활용품들을 넉넉히 마련해주어 떠나보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기풍으로

당의 호소에 화답해나선 수도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날마다 새로운 로력적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단 며칠동안에 작업복천 2만m와 꽃천과 이불감천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두었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식기를 비롯한 각종 그릇 2000점, 박막 1만㎡와 많은 식료품들을 제때에 보장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대동강축전지공장과 송전선건설사업소에서도 며칠동안에 북부지역 피해복구에 필요한 축전지들과 철탑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또한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두가 떨쳐나 짧은 기간에 내의를 비롯한 편직물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평양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줄 불같은 열의를 안고 바께쯔와 천막, 소랭이, 바가지 등 수만점을 불이 번쩍 나게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과 평양베아링공장, 평양양말공장, 애국편직물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신발공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다른 공장, 기업소들도 전시생산을 보장하는것처럼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낼 자재와 물자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최 수 복

##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3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 앞서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로숙하고 세련된 불패의 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보았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중국 대북선박 《장흥12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을 제시해주시여

온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환희와 기쁨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력사의 그날을 우리 민족은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평양에서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 채택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마련된 특기할 사변을 우리 겨레가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오늘 해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화해와 협력의 6.15통일시대가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애국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민족은 환희에 넘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6.15공동선언이 적극 리행되는 속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북과 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사업, 두동강났던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의 련결, 금강산관광의 활성화와 개성공업지구의 가동, 부산에서 타오른 통일의 열풍…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해와 달이 흘러가던 바로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다시한번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주체96(2007)년 8월 5일 평양에서는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게 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더욱 다그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해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에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것이다.

해빛도 눈부신 주체96(2007)년 10월 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4.25문화회관 광장에 나가시여 평양을 찾아온 남측일행을 따뜻이 마중해주시였다. 그날의 숭고한 화폭은 오늘도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 남북수뇌들의 상봉은 온 겨레의 상봉》이라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고매한 인품에 깊이 머리숙이며 그이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다심한 어버이의 모습그대로였다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상봉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인 선언을 마련하시기 위해 마치신 비상한 정력은 또 얼마나 만사람을 경탄케 하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동안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라는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대범하게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무한대한 동포애,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정앞에 남조선당국자는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성원들에게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이전시기의 원념과 낡은 유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드디어 주체96(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한 10.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온 겨레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전세계를 격동시켰다.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남녘땅은 다시금 김정일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관으로 10.4선언을 마련》,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 과시》, 《최고의 애국자》, 《장군중의 으뜸장군》…

남녘겨레는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날을 반드시 앞당겨올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10.4선언을 제시해주시여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고 6.15공동선언의 전면적실천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깃들어있는 북남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무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자주와 단합의 숭고한 리념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며 요구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하는 숭고한 애국의 리념이 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이며 근본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위업이며 대단결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라면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요인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자기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통일문제해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따라서 해내외의 온 겨레는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면서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온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준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에 의해 제시되고 10.4선언에 의해 다시금 확인된 애국의 대명제 우리 민족끼리이다. 이 대명제는 조국통일의 진로를 애국의 뜻이 차넘치는 단 여섯글자에 명쾌하게 담아낸것으로 하여 대번에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와 온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애국리념이다. 여기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 자주적민족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이 어려있으며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단합의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려는 드팀없는 의지가 구현되여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와 단합의 궤도를 따라 한치의 탈선도 없이 곧바로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

온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우리 민족끼리는 6.15통일시대의 현실을 통해 그 위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6.15통일시대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민족공조를 적극 지향하면서 서로의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쳐나갈 때 외세의 방해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하고 정세가 복잡해도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그 요구대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합을 지향해나가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미국과 그 추종 박근혜역적패당의 반통일적망동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깊이 간직하고 자주정신과 단결의 의지를 높이 발휘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나아가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근본원칙과 립장에서는 추호의 변화도 있을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심 철 영

# 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환호성이 메아리치고 김정일열풍으로 온 남녘땅이 끓어번지던 9년전 력사의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2007년 10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력사적인 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선언의 채택으로 겨레의 자주통일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조국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성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위업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필승의 기치를 안겨주신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남북선언들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통일운동은 지금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이남의 현 집권세력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에 역행하여 때일과 같이 체제대결을 부르짖으며 무분별하게 놀아대고있다.

최악의 질식상태, 민사상태에 처한 남북관계는 이 땅에서 대화가 아닌 대결을 추구하며 평화가 아닌 전쟁에 매달리는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이남의 반통일세력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까지 가로막으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겨레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막을수 없다.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자주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것은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온 겨레가 간직한 확신이다.

오늘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숭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동포애, 광폭의 도량으로 온 겨레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겨레가 입입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남녘의 애국민중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이하고있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사변적인 성과들을 금문자로 아로새긴 6.15통일시대를 다시금 커다란 감격속에 돌이켜보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을 통하여 채택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천명하였다.

6.15공동선언에 의해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절대적진리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제시되였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담고있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과거의 북남합의들을 총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최고지침으로서의 절대적위를 가진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사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우리 겨레는 북남선언들이 우리 민족 누구나 받아들이고 공감할수 있는 유일무이하게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라는것을 현실을 통해 폐부로 절감하였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이 적극 실현되였다. 북남대화는 소모적인 론쟁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화로 발전하였다. 분렬의 비극속에 신음하던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 웃음속에, 눈물속에 혈연의 뜨거운 정을 나누고 남녘겨레들은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마음껏 돌아보며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이 나날 북남삼천리강토에는 《우리는 하나다!》의 함성이 힘차게 메아리쳤으며 북과 남의 겨레들은 자주통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얼싸안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확고히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오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민족번영의 길이 열리지만 선언들을 거역하고 그 리행을 거부한다면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비관하지 않고있다. 그것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민족이 나아갈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간다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이 굳게 자리잡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되던 격정의 나날에 대한 우리 겨레의 가슴뜨거운 추억은 제2의 6.15통일시대를 펼쳐놓음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 의지와 맹세로 불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 청와대대결악녀를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

### 절대로 살려둘수 없는 대결병자

박근혜역도가 우리의 혁록음에 그만큼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등뼈 부러질 악담만 쏟아내고있다.

역도가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나타나 우리를 극악무도하게 헐뜯는 망동을 부린것은 지랄병 만난 박근혜와 같은 원하의 악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것이다.

박근혜년이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을 영원히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앙탈질을 해댄것을 보면 매국반역에 환장해도 이만저만 환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동족대결을 일삼지 않은자가 없지만 어느 놈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그처럼 악에 받쳐 헐뜯지는 못하였다. 박근혜역도야말로 희세의 대결미치광이이다.

이년이 요즘 심화병에 걸려 정신이 들락날락하는지 짖는 소리마다 개소리뿐이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이 박근혜역도를 청와대에서 쫓아내자고 매일과 같이 들고일어난다는데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동족대결의 악담을 마구 쏟아내는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을 모조리 쇠뚜이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처박는 심정으로 200일전투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것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김 충 걸

### 가련한 산송장의 비명소리

박근혜년이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데서 우리를 걸고드는 갖은 악의에 찬 망발들을 다 늘어놓았다니 치솟는 격분을 누를 길 없다.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쉬해지는 우리의 혁역제력강화조치들에 혼비백산한 역도가 하루가 멀다하게 대책없는 모의판들을 벌려놓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비루한 구걸질에 여념이 없더니 절망과 공포, 피해망상증이 극도에 달하여 이제는 못하는 수작이 없다. 기력도 달도 없는 산송장이 악만 살아서 칼물고 마지막뜀뛰기를 하려들고있는것이다.

역도가 미쳐도 정말 더럽게는 미쳤다. 미국상전의 사타구니나 핥아먹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년이 감히 어디에다 대고 개나발질인가. 잠시도 쉴새없이 대결의 악청을 돋구는 년의 로골로골한 상통을 무쇠주먹으로 쳐갈기려는것이 우리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제땅을 타고앉은 미제침략자들의 발싸개노릇이나 하며 나라와 민족을 망신시키는 역도년의 짤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

미친개는 사정보지 말고 몽둥이로 조져대야 하듯이 박근혜와 같은 매국역적들은 곧을 들여 한시라도 빨리 박멸해치워야 한다.

이번에 박근혜가 《생사존망의 비상시국》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는데 그래도 제 처지를 영 모르지는 않는 모양이다. 무자비한 징벌의 날창이 피많은 년의 몸뚱이로 날아들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박근혜역도에게는 생사존망의 시각이다.

똑바로 알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더욱 강성번영하게 될것이다.

박근혜패당이 지금은 주둥이가 살아 악담질에 여념이 없지만 머지않아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고야말것이다.

체육성 국장 방 룬 일

### 미친년의 골통에 증오의 철추를

청와대미친년의 륜수없고 주제넘은 악다구니질에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청와대골방에 대가리를 쑤셔박고 미국이 주는 쉬지근한 뜨물이나 핥으며 살아가는 비루먹은 암개같은 년이 그 구린 아가리로 감히 우리를 정신없이 헐뜯었다니 증오와 격분이 치밀어올라 진정할수 없다. 어데다 대고 함부로 《공포정치》니, 《체제불안정》이니 하고 악담질인가.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억척의 성새를 이룬 세상에서 제일 공고하고 위력한 나라이다. 미국놈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떼무리를 지어 덤벼들어도 끄떡없고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 우리 공화국이다.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민사랑의 화원, 일심단결의 강국을 그 무슨 《공포정치》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망발로 어째보려는 박근혜야말로 눈깔이 끓아빠진 청맹과니이고 천하의 미친년이다. 남조선을 사람 못살 인간도살장으로 만든 희세의 살인마가 무슨 낯짝에 《삶의 질》이니 뭐니 하며 개떡같은 수작질인가.

이 살인악마때문에 생존권사수를 위해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가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던 고령의 백남기농민이 끝내 절명한것이 아닌가.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극악무도한 살인범죄자가 오히려 뻔뻔스럽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걸고든것을 과연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고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우리 전력공업성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또다시 중상모독한 가증스러운 박근혜역도의 대갈통을 증오의 철추로 가차없이 내려치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을 퍼붓는 심정으로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전력공업성 국장 김 명 철

### 정신병자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피가 끓어오르고 치가 떨린다.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코를 들이민 박근혜역도가 갖은 악담을 다 줴치며 무엄하게도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에까지 도전해나섰다니 이것을 참을수 있는가.

언제 제정신 모를 송장같은 늙다리년이 입에서 냄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악담질을 해댄것을 보면 정신병자가 분명하다.

박근혜가 우리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따위 헛나발질인가.

우리 공화국은 한없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다운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들의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세인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그런데도 박근혜년은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가리워보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그야말로 미친짓이 아닐수 없다.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는 말이 그른데 없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으로 찌들대로 찌든 대결악녀의 속통이 어떻게 달라질수 있겠는가.

참는데도 분수가 있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서는 억척무리는 사정볼것 없이 당장 죽탕쳐버려야 한다.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른 청와대마귀년을 비력대미에 처박아버리겠다는것이 우리 탄광로동계급의 웨침이다.

그렇다.

박근혜와 같은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는 가차없이 통지처참해야 한다.

형봉탄광 지배인 김 창 웅

## 단 평 놀림거리가 된 시정배의 단식통성

얼마전 《새누리당》 대표 리정현이 갑자기 무기한단식통성을 선포하였다. 박근혜가 내세운 피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비상방법》이니, 《목숨바칠 각오》니 하는 어마어마한 언사까지 써가며 단식을 한다고 나선것이다.

카판은 시정배들이 연출한 이 유치한 신파극이 민심의 동정은커녕 여론의 야유조소만 받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각계는 《살다보니 별 희한한 일도 다 본다.》고 하면서 반역당패거리들의 어이없는 단식놀음에 쓴웃음을 짓고있다. 이러다가는 야당이 밉다고 청와대안방주인까지 단식하지 않겠는가고 비꼬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이런 속에 단식투쟁경험이 많다는 한 야당인사는 《웬만큼 단식해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건강이 중요하니 힘들면 중단하라.》고 조언까지 하여 리정현의 부아통을 돋구었다.

결국 자못 비장함을 연출하여 여론의 동정을 사고 야당의 공격으로 인한 수세에서 벗어나려던 반역당패거리들은 통네웃음거리로 되고말았다.

그동안 《국회》 독판치기로 온갖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마구 꾸며내던자들이 어느야태정국에서 불현듯 피해자처럼 보이려 하였으니 이런 뻔뻔스러운 정치시정배들을 누가 좋게 보겠는가.

안팎으로 몰리우는 청와대마녀의 가긍한 꼴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용기를 내여 단식에 나섰지만 고기는 못 잡고 물만 흐려놓은 격이 된 리정현의 처지도 가긍하다.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그의 단식놀음이 어떻게 끝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허 영 민

#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 남조선 민권련대가 지지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가 9월 27일 서울의 피뢰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패당의 성과년봉제도입을 반대하는 공공부문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였다.

민권련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권초기부터 공공부문에 경쟁과 리윤의 원리를 도입하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온 박근혜《정권》에 의해 재벌대기업들과 외국자본들은 리윤획득의 기회를 얻는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박근혜《정부》가 로동자들을 무한대한 경쟁에로 내모는 성과년봉제도입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공공성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도 무너진다!》, 《성과년봉제반대를 위한 총파업은 정당하다!》, 《박근혜정부는 성과년봉제도입 중단하라!》 등의 선전물들을 들고있었다.

# 진보적인류는 백두산위인칭송의 대회합을 기다린다

인류의 마음과 마음들이 2017년에로 달려고있다.

2017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하기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류공동의 경사의 날들을 보다 성대하게 경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조직되고있다. 뜻깊은 2017년을 백두산위인칭송의 열풍으로 온 세상이 끓어번지는 해로 빛내이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0월 11일,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진보적인민들의 흠모심이 온 세상에 뜨겁게 급이치는 속에 평양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모임이 진행되였다.

로씨야친선대표단, 로씨야 연해변강 아르쫌시대표단,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필리핀친선대표단,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대표단,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대표단, 일본조선문제간담회대표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2017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로 된다고 하면서 2017년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를 나라와 지역별로 결성하고 다채로운 경축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2017년을 인류공동의 경사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뜻깊은 2017년을 향한 세계적판도에서의 경축활동이 시작된다는것이 엄숙히 선포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고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더욱 두터이 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2017년에 우리 모두 백두산성지에서 다시 만나자!》

이때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고 행성은 위인홍보열기로 차넘쳤다.

현재까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향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안, 아랍지역준비위원회와 수리아, 민주꽁고, 에짜도르, 남아프리카, 빌카리아, 파키스탄, 타이,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메히꼬, 로씨야 하바롭스크, 도이췰란드, 마자르,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캄보자, 뚜니지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들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태양절과 광명성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날을 의의깊게 경축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된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인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2017년을 격정속에 기다리는것인가.

위인을 흠모하고 따르는것은 만물이 태양을 따르는것과 같은 응당한 리치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과 열을 받고 살아간다. 하지만 인류는 자연계의 태양이 주는 빛과 열만으로는 생존할수 없다. 장구한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오랜 기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참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 력사의 온갖 반동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카로막고 억압착취하였다.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제도적형태는 달라졌지만 근로대중의 처지는 언제나 비참했다.

항거도 있었다. 로마에서의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을 비롯하여 사회발전의 첫 기슭에서부터 세계 각지에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말할수 있는 노예폭동 그리고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는 붕괴되였다. 하지만 인민대중의 운명은 또다시 착취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였다. 노예의 신분과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난 인민대중에게 차례진것은 자본의 멍에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력사의 앞길에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세워주신 때로부터 인류는 자기의 가치와 존엄을 알았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주인의 지위를 찾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세계 피압박근로대중에게 《주체》라는 힘있는 무기가 안겨지고 자주화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주체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인류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아시아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태양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고 성장발전하게 하는 원천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진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세상도 태양이 있어야 존재하고 발전한다고 말할수 있으며 그 태양은 전인류가 흠모하고 의탁하는 수령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의 판단에 의하면 그러한 인류의 태양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하여 모실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출현하는것도 아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모시게 됨으로써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숭앙하며 사는 긍지높은 세대로 되였다. 진정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하늘이 낸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를 인류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인류의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고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인류에게 더 큰 힘과 용기, 희망을 안겨주신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시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선군의 총대로 물리치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총대로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하기에 인류는 이렇게 격찬하고있다. 《우주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류의 앞날을 밝혀주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오늘 인류의 앞길에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 높이 솟아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계신다. 지배권확보를 위한 렬강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조선을 동방의 핵강국,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존엄높은 나라로 내세워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악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불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이 행성에서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류는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정녕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온갖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자주시대의 활로를 활짝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모심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지금 진보적인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격정을 소리높이 구가하게 될 2017년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2017년에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떠받드는 태양의 성지,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는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피치는 태양칭송의 송가가 하늘땅을 진감하며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보도

#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사회의 대풍모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의 호소따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계속 보도하고있다.

9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라오스, 만마, 월남, 나이제리아, 민주꽁고, 브라질을 비롯한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네트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피해복구전투》, 《조선 큰물피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분발》, 《피해복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등의 제목밑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련일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월초에 큰물피해를 입은 조선의 함경북도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취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세멘트생산기지와 철도운수부문 등에 나가 복구에 필요한 세멘트, 철강재와 식량,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물자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실어나르도록 대중을 고무하고있다.

식료품과 옷, 의약품, 이불을 포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지원이 그칠새없이 계속되고있다.

북부피해지역에서의 복구전투를 통하여 조선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사회의 대풍모가 힘있게 시위되고있다.

이 나라의 인터네트통신 테이따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피해복구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단숨에기상은 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상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무산군의 피해복구전역으로 달려나간 군인들은 수만㎥의 토량과 감탕을 단숨에 들어내고 16시간만에 300여m의 도로를 복구한것을 비롯하여 짧은 기간에 사태로 묻혀버린 많은 구간의 도로들을 열어제끼였다.

또한 이들은 도로복구, 살림집건설과 함께 수원지공사도 도맡아나섬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보장하고있다.

미국의 UPI통신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무산에서 2개의 역을 련결하는 철길구간이 10여일만에 복구되였다, 세멘트와 철강재, 피해복구물자를 실은 렬차들이 피해복구전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고있다, 이것은 많은 건설력량과 수단, 자재들의 수송속도를 높여 피해지역의 복구를 빨리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된다고 보도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웹페지부 인터네트홈페지도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편집물을 올려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종착점은 파멸의 무덤뿐이다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강행채택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도꾜의 국회청사앞과 오사까, 히로시마, 나고야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안전보장관련법》때문에 전쟁에 말려들어 커다란 재앙을 입을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로부터 나온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이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위한것이라느니, 일미동맹강화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궤변대고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넋두리이다.

일본반동들은 서툰 말장난을 하면서 자국민들을 우롱하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을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 무슨 전쟁억제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욱 아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침략과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철저한 전쟁법이다.

원래 일본은 전범국, 패전국으로서 륙해공군 및 전쟁능력을 보유할수 없다. 오직 자국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유지하게 되여있다. 교전권과 집단적자위권은 절대로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것은 법화되였다. 이로 하여 일본은 형식상으로나마 국제무대에서 《평화국가》로 인정을 받아왔다.

오늘에 와서 그 허울은 완전히 벗겨졌다. 《안전보장관련법》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제약하던 모든것이 무용지물로 되였다. 안보위기사태를 《직접무력공격사태》외에 일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영향사태》, 동맹국들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으로 인한 자국의 《존립위기사태》로 확대함으로써 《자위대》가 세계 그 어디에서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벌리는 전투행동에 뛰여들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동시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것을 조작해놓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택하여야만 가능했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집권자가 결심만 하면 한주일안에 실천할수 있게 해놓았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의 모자를 쓰고 다른 나라들을 직접 공격하고 침략할수 있는 전쟁국가로 둔갑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전쟁억제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는것은 기만이다. 그들은 그것을 터대고 미국과의 군사작전일체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일미동맹이 전쟁을 몰아온 사실만을 기록하고있지 평화를 가져다준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야망의 산물인 《안전보장관련법》이 존재하는 한 일본인들은 싫든좋든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일본은 또다시 침략전쟁의 발원지로 되였다.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지난 세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무서운 참화를 입을수 있는 처지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안전보장관련법》을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하고있는것이다.

사실 일본당국자들이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고 자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들의 행동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을 무시하고 해외팽창과 군사대국화에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일본방위상 이나다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보장관련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였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그 새로운 임무라는것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이다. 이미 《자위대》는 그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머지않아 일본경외에서 미군과 그를 위한 실전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야망은 위험한 계선을 넘어섰다. 그들은 《안전보장관련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공개적으로 재침의 첫발을 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개꿈을 꾸고있다. 그들은 몰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며 나라를 파멸에로 몰아가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에 대처해나가려는 나라들의 경계감이 높아지고있다. 일본이 적국으로 간주되여 여러 나라들의 불이대상으로 되고 선제타격을 받아 나라가 망할수 있다고 한 자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일본당국자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이전 일본수상 무라야마는 일본헌법은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하지 않고있다, 이것이 일본이 전후 70여년간 전쟁의 불길을 면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과거 제국시대를 꿈꾸면서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나간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종을 울린것이나 같다.

만일 일본이 이것을 무시하고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가닿을 종착점은 파멸의 무덤뿐이다. 과거에는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라도 유지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완전히 재가루가 되여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수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어리석은 망상이 자국에 어떤 비참한 참화를 가져다줄것인가에 대해 깊이 따져보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일본에 다시한번 경고하건대 재침은 곧 파멸이다.

리학남

# 미제는 자중, 자숙해야 할것이다

##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9월 2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반공화국핵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어리석은 핵전쟁도발광기》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에 혼비백산한 미제는 무엄하게도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을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미제는 지난 9월 13일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악명높은 《B-1B》핵전략폭격기 2대를 남조선지역상공에 긴급출격시켰다.

미제는 이것이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실천의 과시》이며 특히는 조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핵전략폭격기 《B-1B》로 말하면 미제가 해외침략전쟁때 핵선제타격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는 악명높은 핵전쟁살인장비이다.

미제는 《B-1B》핵전략폭격기만으로도 핵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허세를 부리고있다. 미제가 이러한 핵전쟁수단을 지난 8월 6일 10년만에 대조선전초기지인 괌도에 전진배치해놓았다는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이 단행하는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여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써먹어보려는 흉악한 속심으로부터 미제는 핵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계속 돌이밀면서 그 과정에 핵선제타격의 기회를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한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졸망스럽게 놀아댈수록 더는 헤여나올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속에 빠져들게 될것임을 명심하고 자중, 자숙해야 할것이다.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쓰디쓴 참패와 멸망뿐이다.

【조선중앙통신】

## 단평 아수의 넋두리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피난민대책수뇌자회의에서 피난민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제법 《인간성이 따제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만약 국제사회가 피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테로분자들을 도와주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죄를 남에게 들씌우는 망발을 줴쳤다.

오바마가 《인간성》을 운운하며 다른 나라들에 피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노릇이 아닐수 없다.

국제사회를 뒤흔들고있는 피난민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만데로전》의 미명하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피비린내나는 인간살륙장으로 만들어놓아 피난민사태를 일으킨것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 무슨 《인간성》을 운운하는가. 낯짝이 소가죽보다 더 두껍지 않고서는 도저히 입에 올리지 못할 넋두리이다. 세계곳곳을 돌아치며 침략전쟁과 형형색색의 《색갈혁명》을 일으킨 미국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화하였다. 정든 고향을 뒤에 남겨두고 살길을 찾아 피난의 길에 오른 피난민수는 세계적으로 6 500만명이상에 달하고있다.

미국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처사에 국제사회가 치를 떨고있다. 오바마가 마치도 테로분자들에 의해 피난민문제가 발생한것처럼 떠들어대도 국제사회는 미국을 인간의 탈을 쓴 아수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이 진실로 피난민사태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산생시키는 《색갈혁명》, 《만데로전》부터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림원

## 스위스단체들

# 유엔사무총장의 반공화국비방중상을 규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9월 27일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비방중상에 날뛰고있는 유엔사무총장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자위적인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직권을 람용하여 이례적으로 단독기자회견까지 열고 《유엔정의위반》이니,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느니 하고 극히 불순하고 온당치 못한 망발들을 내뱉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9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에서 이 악랄한 비방중상을 규탄하였다.

반기문은 미국과 박근혜친미보수역적패당에게 맹종맹동하는 하수인이다. 그는 심지어 여러 공식석상들에서까지 《북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궤쳐댔다.

유엔사무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조선사람으로서 유엔의 존엄있고 책임있는 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동족대결소동에 맞장구를 치고있으니 반기문을 어찌 조선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반역자이며 미국의 심부이다.

반기문은 미국상전과 박근혜패당의 반공화국압박소동에 추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를 무너뜨리려는 범죄적이고 반민족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과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그만두라!

#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의 절박한 요구-유엔개혁문제

머지않아 유엔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이 다가옴에 따라 유엔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 기구가 인류의 념원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계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베네수엘라의 마르가리따섬에서는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것은 한결같이 회의참가자들이 유엔개혁을 호소해나선것이다.

회의참가자들은 연설들에서 유엔은 안전보장리사회를 더 많은 나라들에 개방하고 주권국가들의 자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엔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유엔의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면 현재의 유엔체제가 재구성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적극 포함시킬데 대해 요구해나섰다.

현시기 유엔개혁문제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은 유엔이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포로되여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막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목적밑에 구상되고 창립되였다. 그런것만큼 유엔은 응당 많은 나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할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운영질서가 세워진 기구로 꾸려져야 했다.

그러나 유엔이 생겨나 70여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평화와 안전보장은커녕 세계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무장충돌, 국가테로행위가 지속되고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묵인되고있다.

평화와 안전보장은 유엔의 기본사명이다. 인류의 생존도, 지속적인 개발도, 지구생태환경의 보존도 모두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과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최근년간에도 유엔무대에서는 특정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놀려워 유엔헌장에 새겨져있는 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그들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검의 아닌 《검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부당하고 부정의적인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조건이 결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금껏 미국에 의해 적지 않게 도용되여왔다.

유엔이라는 신성한 국제기구가, 유엔의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토의의제를 론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차별적인 론리,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강도적궤변에 맞장구를 치며 렬강들의 독주무대로 도용되고있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성원국들은 채택된 최종문건을 통해 《최근년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지나치게 빨리 위협적인 립장을 취하거나 강제적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경우들에 한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저조하게 대응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헌장에 따라 제재는 반드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운동성원국들에 대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들 특히 이 나라들의 자결권과 독립,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나게 제정, 적용되고있는 일방적인 강압적조치들을 규탄하는 마르가리따선언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전체 유엔성원국의 근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통된 립장 즉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인것이다.

최근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71차회의에서도 유엔을 하루빨리 진정하고 민주주의적인 기구로 개혁할데 대한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유엔총회 제71차회의에서 연설한 꾸바외무상은 유엔은 지금까지 일방주의에 의해 존재해왔다고 하면서 민족들사이의 호상존중, 평화수호의 원칙에서 국제질서를 재수립하고 진정한 유엔개혁을 하루빨리 단행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브라질, 인디아, 도이췰란드, 에짚트, 꽁고, 월남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강권과 일방주의가 판무하는 유엔을 근본적으로 개혁할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지금 유엔개혁문제에 대한 론의의 초점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 특히는 상임리사국들의 권한문제와 상임리사국수를 늘이는 문제에로 집중되고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것으로 하여 유엔개혁이 좀처럼 추진되지 못하고있다.

《민주주의수출》을 제일 요란스레 제창하는 미국은 시대적요구, 유엔성원국다수의 요구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보아야 한다.

더이상 유엔은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도구로 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자주와 정의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쇠퇴몰락하고있는 저들의 최지를 건져보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세계의 광범한 자주력량, 정의와 진보적력량의 투쟁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라명성

## 국방력강화의 중요성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사령관이 최근 국방력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날 이란의 힘이 적들보다 우세해졌다고 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을 비롯한 렬강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였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였기에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침략을 저지시킬수 있었으며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전을 유지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 경제침체

아일랜드에서 8월에 소매업체들의 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 4.7% 줄어들었다.

9월 28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 총기류범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9월 28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14살 난 소년이 학교정문에서 운동장을 향하여 마구 사격을 가하여 2명의 학생이 죽고 교원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자연재해

오스트랄리아의 남부오스트랄리아주에서 세찬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8만번의 벼락이 쳤다. 이로 하여 9월 29일현재 주저으로 16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또한 렬차와 궤도전차운행이 중지되여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 *

그리스의 펠레폰니스반도앞바다에서 9월 28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그 부근 바다물밑 19km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ㄱ-61160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